

소유여격구문 다시 보기*

김상윤

덕성여자대학교

김상윤(2023), 소유여격구문 다시 보기,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4(3), 31-56.

초록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여격을 통한 소유관계의 표현은 유사한 구조의 구문이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들에게 생경하다. 한국인 학습자 역시 소유여격과 소유사를 사용한 구문 (se me torció el tobillo/se torció mi tobillo)의 의미 차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소유여격은 소유자가 사건의 결과로 인한 수혜자 또는 피해자임을 의미하는 피영향성을 수반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유여격구문을 부분과 전체, 귀속, 친족관계로 나누어 의미적 특성과 사용상의 제약을 분석한다. 교육 일선에서 피영향성을 함께 다루어 소유여격구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부분은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서 기술하였으며 다수의 상세한 예문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여 소유와 피영향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소유여격과 수령자 또는 기점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법의 여격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설명한다.

핵심어 소유여격구문, 피영향성, 소유사, 비핵심논항, 적용구

* 유익한 논평을 해준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본 연구는 2023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내용은 2023년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소개되었음을 밝힌다.

I. 서론

스페인어는 소유사, 전치사, 일부 어휘요소 외에 여격을 통하여 소유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소유여격구문(possessive dative construction)이라고 일컫는다.¹⁾

- (1) a. Se me hinchó el tobillo.
 b. Le robaron la cartera.
 c. Se le murió la abuela.

위의 예문에서 여격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은 소유자(possessor)의 역할을 수행하여 명사구가 지칭하는 피소유자(possessee)와 다양한 유형의 소유관계를 형성한다. 소유자가 피소유자 명사구를 벗어나 문장 중 별도의 요소로 이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형을 외적 소유(external possession)로 명명하기도 한다(Payne & Barshi 1999). 소유여격구문은 다수의 언어에서 폭넓게 관찰되는 현상이다.²⁾

- (2) a. 독일어(Lee-Schoenfeld 2006:102)
 Tim hat der Nachbarin das Auto gewaschen.
 Tim has the neighbor.DAT the car washed
 ‘Tim은 이웃의 차를 닦았다.’
 (직역: Tim은 이웃에게 차를 닦았다.)
 b. 히브리어(Landau 1999:3)
 ha-yalda kilkela le-Dan et ha-radio.
 the-girl spoiled to-DAN ACC the-radio
 ‘The girl broke Dan’s radio.’
 ‘그 소녀는 Dan의 라디오를 망가뜨렸다.’
 (직역: 그 소녀는 Dan에게 라디오를 망가뜨렸다.)

1) 전통 스페인어 문법의 틀 내에서 이때 사용되는 여격을 가리켜 *dativo simpatético*라고 칭한다. 한편 논문에서 사용된 약어는 다음과 같다. ABL(탈격), ACC(대격), Appl(적용), DAT(여격), IMP(명령법).
 2) 소유여격구문이 로망어에 한정된 현상으로 국내 학계에 소개된 바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c. 레바인 아랍어(Haddad 2016:40)

Ziya:d yassal-la: l-sayya:ra mbe:riħ
 Ziad washed-her.DAT the-car yesterday
 ‘Ziad는 어제 그녀의 차를 닦았다.’
 (직역: Ziad는 어제 그녀에게 차를 닦았다.)

그러나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한국어와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여격을 통한 소유관계의 표현에 생소함을 느끼기 마련이다.³⁾ 더욱이 이후 단계에서도 소유여격구문의 고유한 특성을 상세히 학습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예문 (1)을 소유사나 전치사구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쓸 때 발생하는 의미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⁴⁾

- (3) a. Se hinchó mi tobillo.
 b. Robaron {su cartera/la cartera de Juan}.
 c. Se murió {su abuela/la abuela del vecino}.

교육 현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 현상에 대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피영향성(affectedness)의 개념을 중심으로 스페인어 소유여격구문의 특성을 다룬다. 피영향성은 특정한 객체가 술부에 의하여 기술된 사건의 결과로 모종의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Pylkkänen 2002, 2008; Cuervo 2003, 2010, 2020; Den Dikken 2023).⁵⁾ 소유여격구문은 소유사나 전치사를 사용하는 구문과 달리 소유자가

3) 영어의 소유여격구문은 중세를 거치며 소멸되었다. 아래는 고대 영어의 예이다.

(i) [...] scearpa him þa scancan
 sacrifice.IMP him.DAT the.ACC leg.ACC
 ‘그의 다리를 절단해라.’ (직역: 그에게 다리를 절단해라.) (Allen 2019:1)

4) 신체 일부를 지칭하는 명사를 포함하는 (3a)와 같은 문장을 비문으로 간주하는 경향 또한 목격된다. 재귀동사와 관련된 문법적 제약(예. Me lavo las manos/*Lavo mis manos)을 확대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신체 일부를 직접목적어로 동반하는 재귀동사 구문은 능동태로 중간태에 해당하는 (3a)와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Picallo & Rigau (1999:§15.6)가 밝히듯 (3a)와 같은 문장은 소유여격구문에 비해 사용 빈도는 낮으나 정문이다.

이러한 영향 아래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명제를 표현하지만 이들 구문은 주어진 상황에 따른 선택의 적절성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피소유자의 성격에 따라 소유여격구문을 전체와 부분, 귀속, 친족관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피영향성이 반영되는 양상과 의미적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혼동을 낳을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여격구문을 비교한다. 피영향성에 대한 설명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어 소유여격구문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이 현상에 관심이 있으나 언어학적 배경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독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론 관련 부분은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서 기술하였으며 상세한 예문을 제시하였다. III장은 통사 이론적 측면의 분석을 제시하며 소유여격과 수령자(recipient) 또는 기점(source)의 의미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법의 여격이 동일한 기능 범주에 의하여 허가됨을 설명한다. 최종적으로 IV장에서 논문을 요약하며 마친다.

II. 소유여격구문의 유형과 피영향성의 반영

여격의 가장 익숙한 용법은 이중타동사(ditransitive verb)가 나타내는 행위에 의하여 이동하는 개체의 종착점(수령자) 또는 시발점(기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래는 전형적인 이중타동사 구문의 예로 각각 제출과 구매라는 행위를 통하여 보고서와 튜립이 특정인에게 전해지거나 특정인으로부터 옮겨오는 사건을 기술한다.

- (4) a. Le entregaron el informe al gerente.
- b. Le he comprado estos tulipanes al florsita de la plaza.

5) 언어학적 측면에서 피영향성은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모두 관계할 수 있다.

반면에 소유여격구문에서는 여격으로 표현되는 대상이 참조점(reference point)으로 작용하여 피소유자가 속하는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소유자로 해석된다(Langacker 1995:76). 이때 여격의 출현은 동사의 의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즉, 행위나 사건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동사의 선택을 받지 않는다. 다음 (5)의 예문에서 술어의 의미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목격과 도난의 대상이다. 이 대상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부차적인 것으로 명사를 한정하여 수식하는 소유사나 전치사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나타낼 수 있으며 생략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여격을 사용하여 소유관계를 표현하는 까닭은 소유자가 기술된 사건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피영향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Demonte 1994).⁶⁾

- (5) a. Le vio la ropa interior a Ana.
 b. Le robaron el bolso a Pilar.

따라서 소유여격구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피영향성이 부각되면서 문장에 어떤 의미적 특성이 덧붙여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앞으로 살펴 보겠지만 피영향성이 시사하는 바가 화맥에서 주어진 상황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이 구문의 적절한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유여격구문은 피소유자의 성격에 따라 부분과 전체, 귀속 및 친족관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Picallo & Rigau 1999; RAE-ASALE 2009; Ortiz 2017). 이 장에서는 유형별로 피영향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본다.

6) 위에서 비교한 두 경우는 대명사의 중복과 관련하여서도 차이를 보인다. 수령자나 기점을 의미할 때에는 여격 대명사가 선택적으로 어휘요소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소유여격구문에서는 필히 중복되어야 한다(Rodríguez Ramalle 2005). Demonte(1994)는 여격 대명사의 출현을 피영향성의 지표로 간주한다.

- (i) a. (Le) dieron un peluche al niño.
 b. (Le) compramos la lotería a nuestro lotero de confianza.
 c. ^{??}(Le) cortaron el flequillo a la chica en casa.

1. 부분과 전체

부분과 전체는 개인(전체)과 개인의 신체 일부(부분) 사이에서 성립되는 비분리성 소유관계(*inalienable possession*)를 일컫는다. 스페인어의 소유여격구문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표현할 때 빈번히 사용된다. 또한 그 역사는 최소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Ortiz 2017). 주로 눈, 입, 손, 발 등을 가리키던 부분은 외연을 확장하여 개인의 영역(*personal sphere*)에 속하는 이름, 습관, 의류, 장신구 등의 대상도 포함하게 된다.

특정 객체가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피영향성은 사용된 어휘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의미가 결정되지만 크게 수혜 혹은 피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양상과 부정적인 양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피영향성의 사례를 초기 스페인어 기록에서 자주 나타나는 ‘*besar la(s) mano(s) a alguien*’ 표현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6) a. Fue besar la mano a so señor Alfonso. (*Cid*, 3512)
 b. Besaron las manos del Rey don Alfonso.
 (*Cid*, 3423-3424) (Ortiz 2017:388에서 재인용)

유럽에서 몸을 낮추어 상대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경의를 표하기 위한 함입은 익숙한 사실이다. 이때 경의를 중심으로 이 행위가 함축하는 피영향성이 드러난다. Ortiz(2017)에 따르면 (6a)의 소유여격구문은 여격 명사가 지시하는 소유자가 경의를 표하는 사건의 수혜자임을 드러내어 피영향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6b)와 같이 *de* 전치사구(또는 소유사)를 사용하면 단순히 누군가의 손에 입을 맞춘다는 행위를 기술할 따름이다.⁷⁾ 후자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경의의 표현임을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여격이라는 문법 수단을 통하여 피영향성을 명시적으로 부호화하는 전자와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현대 스페인어 예문의 의미 차이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7) 초기 스페인어는 여격대명사의 반복이 확립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Ortiz 2017).

- (7) a. Te alabamos el buen gusto a la hora de componer.
- b. Alabamos tu buen gusto a la hora de componer.

부정적 피영향성은 소유여격구문의 의미 형성에 있어 정황적 요소가 개입하는 양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 소유자는 피해자로 해석되는데 대표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한 위해나 부적절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8) a. Le quebraron una pierna a un bailarín [...].
(*Página 12*, 2021-12-15)
- b. Llamaron a un mecánico y le amputaron un dedo.
(*El País*, 2023-07-30)
- c. Bullying en la escuela: le cortan el pelo a una joven con problemas de aprendizaje sin su consentimiento.
(*Rosario Nuestro*, 2018-09-05)
- d. El agresor defendió que no le había tocado el culo.
(*El Nacional*, 2023-09-12)

위의 예문은 전치사나 소유사를 사용하여 quebraron una pierna de un bailarín, amputaron su dedo, cortaron el pelo de una joven, no había tocado su culo로 표현할 수 있으나 이를 피하고 모두 소유여격을 사용하고 있다. 소유자가 명백히 피해를 겪는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관련 사건을 기술하는 과정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⁸⁾

피영향성의 유발 동기는 물리적인 침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부끄러움이나 당혹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가 타인의 시선에 노출될 경우 소유자에게 부정적인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소유여격구문은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Pylikäinen 2002, 2008).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른 언어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8) 일례로 'le amputaron la pierna (a 소유자)'와 'amputaron la pierna de 소유자' 문형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각각 35,700건과 2,640건의 사례가 나타난다.

- (9) 히브리어(Landau 1999:26)
- a. Gil ra'a le-Rina et ha-pupik
Gil saw to-Rina ACC the-belly.button
'Gil은 Rina의 배꼽을 보았다.'
(직역: Gil은 Rina에게 배꼽을 보았다.)
 - b. *Gil ra'a le-Rina et ha-bayit.
Gil saw to-Rina ACC the-house
'Gil은 Rina의 집을 보았다.'
(직역: Gil은 Rina에게 집을 보았다.)

Landau(1999)에 의하면 히브리어는 내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수록 (9a)처럼 여격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반면에 타인의 눈에 띄었을 때 소유자에게 별다른 감정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대상은 여격을 통한 소유관계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 (9b)가 이에 해당한다. 유사한 사례를 의류 명사를 포함하는 또 다른 유형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⁹⁾

- (10) 핀란드어(Pykkänen 2008:51)
- a. Riikka näki Sanna-lta aluspaida-n.
Riikka saw Sanna-ABL undershirt-ACC
'Riikka는 Sanna의 속옷을 보았다.'
(직역: Riikka는 Sanna에게서 속옷을 보았다.)
 - b. #Riikka näki Sanna-lta päällystaki-n.
Rikka saw Sanna-ABL overcoat-ACC
'Riikka는 Sanna의 외투를 보았다.'
(직역: Riikka는 Sanna에게서 외투를 보았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속옷의 노출은 당혹스러움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외투는 이러한 상황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피영향성과 관련된 차이가 (10)에서 보는 대조를 불러일으킨다. 스페인어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인다.

9) 핀란드어는 15개로 구분되는 복잡한 격 체계를 갖는다. 여격이 없으며 향격(allative)과 탈격(ablative)을 각각 수령자와 기점을 지칭하는 목적으로 다른 언어의 여격처럼 사용한다.

- (11) a. Le he visto la ropa interior.
 b. #Le he visto {el abrigo/los vaqueros/la camiseta}.
 c. Le he visto la raja del culo.
 d. #Le he visto {los ojos/la espalda/las manos}.

다음과 같이 소유여격의 사용과 정황적 조건의 관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속옷이 노출된 상황에서 사용된 소유여격은 필히 소유자가 해당 의류를 착용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속옷이 타인의 눈에 띄는 것은 소유자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가 부각되지 않아 피영향성이 성립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여겨져 소유사나 전치사를 통해 소유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¹⁰⁾

- (12) a. [...] nos pusimos en marcha a alistar las maletas hasta que Logan me empezó a molestar mientras él acomodaba mi ropa interior. No, no me molesta que mi mejor amigo vea mi ropa interior, yo igual he visto su ropa interior. Incluso nos hemos visto la ropa interior puesta con la confianza que nos tenemos.
 (<https://www.wattpad.com/amp/950251676>)
 b. [...] he visto su ropa interior cuando la cuelga a secar.
 (Restrepo, *Canción de antiguos amantes*)

예문 (12a)는 노출된 속옷의 착용 여부에 따라 대조적으로 사용된 여격 대명사와 소유사를 모두 포함하여 각 요소가 수반하는 의미적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피영향성의 형성과 소유여격구문을 통한 표현은 사건에 관여하는 다양한 정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행위에 의도성이 수반되는 경우를 통하여 한 차례 더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ver* 동사와 달리 *mirar* 동사는 대상을 바라볼 때 이 행위에 행위자의 의지가 실려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자연스레 소유자가 겪는 피해를 상정하게 되어 여격소유구문이 사용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10) 신체의 치부 노출 또한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소유사나 전치사 *de*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13) a. ¿Me estás mirando el escote?
 b. Le miró el trasero a la chica de delante.

위의 사건은 행위자가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를 의식하여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때 mirar 동사는 우리말의 ‘훔끗거리다, 훔쳐보다, 겘눈질하다’에 상응하는 해석이 가능하고 어휘 의미만으로 행위의 결과가 신체 부위의 소유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어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피영향성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사나 전치사를 통한 소유관계의 표현을 선호한다. 아래 예문은 한 영화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주인공이 침대 발치에 앉아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연인의 발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 (14) Eva: ¿Qué haces?
 Samuel: Miro tu pie. (Bienvenido a casa 16:10)

응시의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와 사건이 전개되는 상황 모두 피영향성의 형성 조건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유사가 사용되었다. 이때 소유여격구문(te miro el pie)은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이와 같이 정황적 요소는 피영향성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손 또한 응시 자체가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신체 부위는 아니지만 이 행위가 피영향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여격을 통하여 소유자를 일컫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 예문은 각각 사생활에 대한 타인의 관심과 신체 수색의 강제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겪는 부정적인 피영향성을 표현한다.¹¹⁾

- (15) a. La meteoróloga está pasando un divorcio muy, muy difícil [...] No le mencioné al marido ni le miré la mano a ver si tiene o no anillo. (Taylor Herrera, *Instrucciones para tratar a la meteoróloga*)

11) 역시 정황에 따라 동일한 동사로 긍정적인 피영향성의 표현 또한 가능하다. mirarle a alguien {la mano/el pie/los dientes/la nariz} 등의 표현은 소유자가 의로 검진과 같은 행위의 수혜자임을 의미할 수 있다.

- b. Los policías le miraron la mano buscando un tatuaje de dos delfines. (*La Razón*, 2018-04-22)

이상에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영향성을 중심으로 소유여격 구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또다른 유형의 소유여격구문으로 분석의 대상을 확장한다.

2. 귀속

귀속 관계는 앞서 살펴본 부분과 전체의 관계와 달리 피소유자가 소유자에게서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성립되는 분리성 소유관계(alienable possession)이다. 소유자로부터 분리 가능한 사물과 그렇지 않은 사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개별 문화의 특수성이 개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이 없다(Thompson 1996; Velázquez-Castillo 1996; Dixon 2010).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일반적인 견해에 맞추어 의류 및 장신구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속하며 여타 소유물은 귀속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귀속 관계에서 나타나는 소유여격구문도 피영향성의 형성에 관여하는 정황적 조건과 관련하여 (12a)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16a)는 소유자가 지갑을 소지한 상태에서 도난당했을 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반면 (16b)는 지갑을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자동차 안에 두어 직접적으로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했음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 (16) a. Le robaron la cartera.
 b. Robaron su cartera.

귀속 관계는 또 다른 측면에서 피영향성을 부호화하는 소유여격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7a)의 소유사는 도난당한 초상화의 소유자, 행위자(화가), 대상(피사체)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17b)와 (17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여격은 소유자만을 지칭할 수 있다.

- (17) a. Se han llevado su_{소유자/행위자/대상} retrato.
 (su retrato = el retrato del coleccionista_{소유자}, el retrato del famoso pintor_{행위자}, el retrato de una dama_{대상})
 b. Se le_{소유자} han llevado al coleccionista el retrato.
 c. *Se le_{행위자/대상} han llevado {al famoso pintor/a una dama} el retrato.

상기 도난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초상화의 소유자이다. (소유권을 양도한) 화가나 그림 속 인물이 도난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다고 고려하기란 쉽지 않다.¹²⁾ 따라서 피영향성의 의미를 수반하는 소유여격은 필히 소유자를 지칭해야 한다. 반면 이러한 의미적 특성과 관련이 없는 소유사는 소유자, 행위자, 대상을 임의로 지시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피영향성을 표현하는 데 반드시 소유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의 여격(dative of interest) 역시 피영향성이라는 의미 특성을 지니는데 수혜자 또는 피해자와 행위가 가해지는 대상 사이에 소유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아래는 이해관계의 여격에 대한 예시이다.¹³⁾

- (18) a. Siempre le cocinó su plato favorito.
 b. Entonces le fabricaron ese caso tan famoso.
 c. Le buscó a Luisa un lugar para dormir.
 d. Te hizo un verdadero estropicio.
 (RAE-ASALE 2009: §35.7b)

12) 행위자나 대상이 동시에 소유자이면 소유여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13) 예문 (18)의 여격은 모두 행위의 방향성을 내포하며 우리말의 ‘~에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dar, entregar, regalar 등의 이중타동사가 선택하는 수령자와 동일한 성격의 성분으로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와 기능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의 여격은 수혜를 표현할 때 ‘para+(대)명사’에 의한 대체와 이에 상응하는 ‘~을 위하여’라는 우리말 해석이 가능하다(Siempre cocinó su plato favorito para el nieto/#Dieron un peluche para el niño). 이들 여격은 중복현상과 관련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소유관계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의 여격 대명사를 중복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Rodríguez Ramalle 2005; RAE-ASALE 2009: §35.7c) (각주 6 참고).

- (i) a. (Le) dieron un peluche al niño.
 b. ??(Le) buscó a Luisa un lugar para dormir.

위 예문의 동사는 행위자와 대상만을 사건의 필수 구성요소로 요구한다. 이해관계의 여격은 동사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유여격과 유사하나 언급한 바와 같이 피영향성의 표현에 있어 소유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¹⁴⁾ 본래 논의로 돌아가서 (17c)가 이해관계의 여격 구문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도난 사건과 행위자 및 대상 사이에 피영향성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친족관계

어휘 의미 자체로 관계성을 내포하는 친족 또한 소유의 개념을 통한 표현의 주요 대상이다.¹⁵⁾ 이 경우에도 소유여격구문은 피영향성을 부호화한다. 아래 두 예문은 언어외적 측면을 고려할 때 똑같이 화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기술하지만 (19a)만이 여격이라는 문법적 수단을 통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 (19) a. Se me ha muerto la abuela.
- b. Se ha muerto mi abuela.

한편 스페인어는 다른 로망어에 비해 친족관계 소유여격구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Piallo & Rigau 1999: 1010). 예를 들어 (20)에 주어진 예문의 형태는 루마니아어의 경우 모두 정문에 해당하나 스페인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Dumitrescu 1990: 419). 따라서 스페인어에서는 부분과 전체 및 귀속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에 비해 친족관계의 소유여격구문이 낮은 빈도로 사용된다.

14) 동일한 문장의 여격에 대해서 소유관계와 이해관계의 해석이 모두 가능할 수도 있다. 아래 예문은 화맥에 따라 누군가가 소유한 서류를 위조(소유여격)하였다는 의미와 누군가에게 제삼자의 서류를 위조해 제공하였다는 의미(이해관계의 여격)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i) Le falsificaron el documento.

15) 스페인어 초기 발달 단계에서 los míos, los suyos와 같은 ‘복수 정관사+후치 소유사’의 형태는 앞서 별도로 언급된 명사 없이 가족이나 친족을 지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Huerta Flores 2009:690).

- (20) a. *Te he visto al novio con otra.
(의도된 의미: He visto a tu novio con otra.)
b. *Quiero conocerte la familia.
(의도된 의미: Quiero conocer a tu familia.)
c. *¿Desde cuándo te está enferma la mujer?
(의도된 의미: ¿Cuánto tiempo lleva enferma tu mujer?)

가족이나 친족에게 생긴 일로 인한 피영향성은 물리적인 이해득실보다 기쁨, 만족스러움, 슬픔, 아쉬움과 같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친족관계의 여격을 심성적 혹은 공감적 여격(ethical dative, dative of feeling)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성적 여격은 주로 격식 없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대화에서 나타나는데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건이나 상황으로 유발되는 감정상의 피영향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역시 동사의 선택을 받지 않는다.

- (21) a. El bebé no me come.
b. ¡No te me asustes!
c. La niña se me puso nerviosa.

(21a)는 ‘아기가 밥을 먹지 않고 나는 이 상황이 내게 염려스럽다’라고 뜻을 풀이할 수 있다. (21b)는 상대를 놀라게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미안함, 안타까움 또는 상대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드러낸다. 이때 (21a)나 (21c)와 같이 가족을 지칭할 수 있는 명사가 사용되면 심성적 여격은 친족관계의 소유여격과 혼동을 낳을 수 있다.

친족관계의 여격과 심성적 여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의미 측면에서 진실조건(truth condition)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Bosse *et al.* 2012). (19a)의 경우 여격 대명사가 출현함으로써 화자의 할머니가 사망하였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여격 대명사의 부재는 화자의 할머니가 아닌 다른 노인의 죽음을 기술하는 전혀 다른 의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21a)는 여격 대명사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명제를 표현할 뿐이고 그

아이와 화자의 가족관계 여부는 특정되지 않는다.¹⁶⁾ 이는 심성적 여격이 이미 완결된 사실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기 때문이다.¹⁷⁾ 두 여격의 차이는 통사적 측면에서도 더욱 두드러진다. 심성적 여격은 1인칭과 2인칭에 한정되어 사용되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Georgala 2012; Romero 2019).

- (22) a. *El bebé no le come.
 b. *El bebé no me come a mí.

반면 친족관계의 여격은 다른 소유여격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칭에 대해 유효하며 중복이 가능하다.

- (23) Se {me/te/le} ha muerto la abuela {a mí/a ti/a ella}.

다른 한 편으로 로망어는 일반적으로 1인칭과 2인칭만으로 이루어진 대격과 여격 대명사가 나란히 배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Meyer-Lübke 1899; Perlmutter 1970; Bonet 1991; RAE-ASALE 2009: §34.8f).¹⁸⁾

- (24) a. *Te me recomendaron.
 b. *Te nos entregó.

16) 친족관계는 소유사로 표현할 수 있다(예. Mi bebé no me come).

17) 이로 인해 동사의 선택을 받지 않는 다른 여격과 달리 심성적 여격은 상응하는 우리말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소유여격과 이해관계의 여격은 각각 '~의'와 '~에게, ~을 위하여'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심성적 여격은 이를 제외해야 문장의 번역이 가능해진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추가적인 어구를 동원한 뜻풀이만이 심성적 여격의 근사한 의미를 전할 수 있다.

18) 비격식 대화에서 단수에 한정하여 이와 같은 배치가 나타나는 현상을 간헐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 (ia)에서는 me에 선행하는 te가 직접보어이다. 이때 간접보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배보어로 대체하여 te presentaron a mí와 같은 구조의 사용이 권장된다(RAE-ASALE 2009: §16.11a-g, §34.8f). (ia)를 수용하는 언어 사용자들도 (ic)는 거부하는데 이는 목적 대명사가 '2인칭 > 1인칭 > 3인칭'의 순서로 정렬되어야 한다는 별도의 규칙을 위반하는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Perlmutter 1970 참고).

- (i) a. ?/*Te me presentaron en la fiesta.
 b. *{Os me/os nos} presentaron en la fiesta.
 c. *Me te presentaron en la fiesta.

친족관계의 여격이 사용된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여서 아래 문장을 통하여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족관계를 표현할 수 없다.¹⁹⁾

(25) *Te me recomendaron.

(의도된 의미: Te recomendaron para el puesto, lo que me alegra porque eres mi hijo.)

그러나 유일하게 심성적 여격은 이러한 제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26) a. Te me han matado. Ya no estás en esta tierra.

b. No te me enfades.

또한 심성적 여격은 다른 여격 대명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27a)에는 소유여격이 사용되었다. 이때 이야기를 전하는 화자는 (27b)와 같이 자식의 자전 거가 수리되어 본인 역시 심리적 부담을 덜었다는 의미를 심성적 여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27) a. Le arreglaron la bici a mi hijo.

b. Me le arreglaron la bici a mi hijo.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여격 대명사의 병렬 배치는 불가능하다. (28a)에 사용된 이해관계의 여격은 ‘너를 위하여, 너를 대신하여’라는 수혜의 뜻을 표현한다. 이를 (28b)처럼 ‘para+대명사’로 대체하고 대신 수령자를 여격 대명사로 표현할 수도 있다(각주 13 참고). 그러나 수혜자와 수령자를 모두 여격으로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28) a. Danielle te escribió una carta a Hanni.

19) (20)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페인어는 대격이 지시하는 대상과 여격이 지시하는 대상 사이에 친족관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문장 형성이 어려워진다.

(i) *Me recomendaron al hijo.

(의도된 의미: Recomendaron a mi hijo, lo que me alegra.)

- b. Danielle le escribió una carta a Hanni para ti.
- c. *Danielle te le escribió una carta a Hanni.

친족관계의 여격 또한 다른 여격 대명사와 함께 나타날 수 없다. 아래 예문의 *me*는 심성적 여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언어외적으로 화자와 수혜자가 친족일 수는 있으나 이를 (29a)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일한 방법은 별도의 소유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 (29) a. Me le dieron un premio al chaval.
 b. Me le dieron un premio a mi hijo.

III. 이론 논의

이 장에서는 소유여격과 수령자 또는 기점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법의 여격이 소유와 피영향성의 개념을 매개로 같은 범주에 속함을 논한다. 스페인 기능주의를 중심으로 전통 문법학자들은 위의 두 여격을 뚜렷이 구분하였다. 수령자와 기점의 여격은 논항으로 간주하여 간접보어(*indirect complement/complemento indirecto*)라고 칭하였고 소유여격은 이해관계의 여격 및 심성적 여격과 더불어 논항이 아닌 잉여 여격(*superfluous dative/dativo superfluo*)으로 분류하였다 (Gutiérrez Ordóñez 1977-1978; Alarcos 1994).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 모두를 간접보어 혹은 여격이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왕립학술원(RAE-ASALE 2009) 역시 간접보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동사의 선택을 받는 논항 간접보어와 그렇지 않은 비논항 간접보어로 구분한다.

비논항 간접보어는 통사 연구에서 비핵심 논항(*noncore argument*)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진다. 핵심 논항(*core argument*)은 동사나 명사와 같은 어휘범주의 선택을 받는 데 반해 비핵심 논항은 기능범주가 선택한다는 견해가 반영된 명칭이다. 즉, 비핵심 논항은 언어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잉여 요소가 아니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체계적인 문법적 특성과 제약을 수반한다.

비핵심 논항에 대한 논의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부분 중 하나는 수령자와

기점의 문법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본래 이들 의미역은 대상과 함께 dar, decir, entregar, regalar 등의 이중타동사의 내재논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의 통사 연구는 어휘요소로서 이중타동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령자와 기점은 동사 어근 아래에서 병합하는 기능 범주인 하위 적용(low applicative)에 의해 허가된다고 제안한다(Pykkänen 2002, 2008; Cuervo 2010; Den Dikken 2023).²⁰⁾ Pykkänen(2002, 2008)은 하위 적용(이하 Low-Appl)의 핵심 의미 자질로 피영향성과 소유 이전(transfer of possession)을 특정한다. 수령자와 기점을 허가하는 Low-Appl의 의미 정보를 표시한 어휘 내항(lexical entry)은 다음과 같다(Pykkänen 2008: 18).

- (30) a. Low-Appl_{TO} (수령자)
 $\lambda x.\lambda y.\lambda f_{\langle e, \langle s, t \rangle \rangle}.\lambda e. f(e, x) \ \& \ \text{theme}(e, x) \ \& \ \text{to-the-possession}(x, y)$
 b. Low-Appl_{FROM} (기점)
 $\lambda x.\lambda y.\lambda f_{\langle e, \langle s, t \rangle \rangle}.\lambda e. f(e, x) \ \& \ \text{theme}(e, x) \ \& \ \text{from-the-possession}(x, y)$

이 범주는 논항으로 두 개의 개체 변항 x 와 y 를 선택한다. (30a)는 x 가 y 의 영역으로 이전되어 전자는 대상으로 해석되고 후자는 수령자의 의미 역할을 수행함을 나타낸다. 개체 변항 x 와 y 는 각각 보충어와 지정어 위치에 병합하는 요소에 의해 지시가 고정된다. 그리고 이후 적용구와 병합하는 동사(어근)에 의해 최종적으로 행위가 결정되며 이른바 이중타동사 구문이 형성된다. (30b) 역시 같은 방식으로 x 가 y 의 영역으로부터 이전되어 y 가 기점으로 해석된다.

- (31) $vP [\sqrt{P} [\text{Low-ApplP} [\text{DP}_{\text{수령자/기점}} \text{ Low-Appl} [\text{DP}_{\text{대상}}]]]]]$

만일 동사가 Low-Appl의 개입 없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보충어로 선택하면 수령자나 기점이 없는 단일타동사(monotransitive verb)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20) vP 위에서 병합하는 상위 적용(high applicative)은 이해관계의 여격과 심성적 여격의 분석에 적합하다. 관련 내용은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는다.

접근은 동일한 어휘가 단일타동사와 이중타동사로 사용되는 현상을 어휘부의 자의적 운용을 배제한 채 구조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는 장점을 지닌다.

이렇게 통사 단계에서 결정된 수령자와 기점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수혜자 또는 피해자로 해석된다(예. *Le dio un premio/Le dio una bofetada*). 이는 소유 여격과 관련하여 살펴본 피영향성과 유사하다. 유일한 차이는 소유여격은 소유 이전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정적인 소유 상태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스페인어의 경험자 여격(예. *Le duele la cabeza*)을 분석하며 Cuervo(2003)가 제안한 또 다른 하위 유형의 Low-AppI_{AT}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 (32) Low-AppI_{AT} (소유자)
 $\lambda x.\lambda y.\lambda f_{\langle e, \langle s, t \rangle \rangle}.\lambda e. f(e, x) \ \& \ \text{theme}(e, x) \ \& \ \text{at-the-possession}(x, y)$

위의 어휘 내용은 변항 x 가 변항 y 의 영역에 속해 있어 y 를 소유자로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모든 종류의 소유여격구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근본적인 관계성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소유자를 나타내는 소유여격과 수령자 또는 기점을 표현하는 여격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들 여격은 모두 동일한 기능 범주의 논항이며 핵의 의미 정보에 따라 해석적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은 소유여격을 대상의 영역에서 생성된 소유사나 전치사구가 이동한 결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를 수용하지 않는다(Croft 1985; Masullo 1994; Landau 1999; Lee-Schoenfeld 2006; Deal 2013). 이러한 시각을 따라가 보면 소유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이질적인 요소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연구는 후치 소유사가 이동하여 전치 소유사를 형성한다는 가설을 인습적으로 받아들인다(Brucart 1994; Cardinaletti 1998; Eguren 2016). 그리고 인칭과 수를 통하여 소유자를 지시하는 유사성에 비추어 소유사가 ‘de+대명사’ 형태의 전치사구로부터 도출된다는 견해 또한 널리 확산하여 있다(Burguillo 2021 참고). 이를 종합하여 소유의 의미를 표현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 (33) a. 전치사구의 후치 소유사화
 la mano de ella > la mano suya
 b. 후치 소유사의 전치 소유사화
 la mano suya > su mano
 c. 전치 소유사(또는 전치사구)의 여격 대명사화
 Miro su mano. > Le miro la mano.

따라서 소유여격은 전치사구로부터 출발한다는 반직관적인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피영향성의 명시적 표현과 관련하여 소유여격과 소유사의 차이를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33c)는 수용 불가능하다. 이어서 (33)의 여타 항목을 무효화하는 분석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1인칭과 2인칭 단수 사격 대명사는 소유자의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

- (34) *un amigo de {mí/ti}

이는 (33a)가 일반화할 수 없음을 보인다. 소유사를 전치사구와 관련지으려는 시도는 여전히 변형(transformation)을 통한 도출에 익숙한 사고를 드러낸다. (33b)의 비논리성에 대한 논거로는 전치 소유사와 후치 소유사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병합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전치 소유사는 한정사이나 후치 소유사는 한정사구 내부에서 투사한 자유관계절의 술어로 병합한다(Kim 2018). 아래 예문의 증거부사(evidential adverb)와 평가부사(evaluative adverb)가 보이는 수식 영역의 차이는 이에 기인한다(Kim 2018을 일부 요약하여 소개한다).

- (35) a. Prefieren, {evidentemente/obviamente}, tu proyecto.
 b. Rechazaron, {desgraciadamente/lamentablemente}, su proyecto.

- (36) a. Notamos el estilo {evidentemente/obviamente} suyo.
 b. Un profesor {afortunadamente/lamentablemente} mío dice [...]

위 예문에서 사용된 부사는 문부사(sentential adverb)의 일종으로 좌측 경계부(left periphery)에서 병합하여 하위 영역에서 합성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견해를 피력하는 용도로 쓰인다(Cinque 1999). 따라서 (35)의 부사는 오른쪽에 위치하는 전치소유사만을 수식할 수 없다. 그러나 (36)에서는 후치 소유사를 단독으로 수식하는데 이때는 해당 부사가 후치 소유사를 술어로 갖는 자유관계절의 좌측 경계부에서 병합하기 때문이다.

- (37) a. Prefiero, {francamente, sinceramente}, tu proyecto.
 b. *Prefiero el proyecto {francamente, sinceramente} tuyo.

반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다른 문부사인 화행부사(speech act adverb)는 후치 소유사를 수식할 수 없다. 종속절은 주절과 달리 좌측 경계부의 구조가 불완전하다(Haegeman 2003; Hernanz 2006). 화행부사는 온전한 좌측 경계부에 화자와 청자가 형식 자질로서 도출 과정에 참여할 때 허가되는 모문현상(matrix clause phenomenon)을 보인다. 이 영역의 구조적 결핍을 보이는 종속절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Kim 2012). 따라서 종속절의 한 유형인 자유관계절은 화행부사의 병합을 허가할 수 없고 (36)과 (37b) 사이의 대조를 초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상은 하나의 소유사가 이동을 통하여 최종 위치를 결정한다는 (33b)과 같은 접근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중세 스페인어는 (38)에서 보는 것과 같이 3인칭을 중심으로 전치 소유사와 전치사구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이 현상은 지금도 중미 지역에서 흔히 목격된다(Huerta Flores 2009; Elsig 2015). 이는 (33a)와 (33b)를 동시에 부정하기에 충분하다.

- (38) su hermana {de ella/de Uds./de Juan}

요컨대 소유관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으며 일부 의미적 연관성에 주목하여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이론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소유여격 또한 독립된 범주로서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중심을 다루어져야 하며 피영향성과 소유관계에 관여하는 Low-AppI을 통한 분석은 현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설명적 타당

성을 확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소유여격과 수령자나 기점을 의미하는 여격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IV. 결론

스페인어의 소유관계는 다양한 문법적 수단을 빌어 표현할 수 있다. 이중 소유여격은 유일하게 소유자의 피영향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피영향성은 크게 긍정적인 방향(수혜)과 부정적인 방향(피해)으로 구분되며 사용된 어휘의 미와 화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의미가 결정된다. 정황적 요건은 소유여격구문의 사용이 적절한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같은 어휘를 사용하거나 명제는 동일하여도 정황에 따라 피영향성의 성립이 좌우되고 소유여격의 사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유여격구문은 피소유자의 유형에 따라 부분과 전체, 귀속 및 친족관계로 세분된다. 각 경우는 고유한 문법적 특성과 제약을 지니며 이는 역시 피영향성을 수반하는 이해관계의 여격과 심성적 여격으로부터 소유여격을 구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통사 이론적 측면에서 소유 여격은 수령자와 기원을 의미하는 여격과 함께 동사 어근 아래에서 병합하며 소유와 피영향성을 부호화하는 기능 범주 Low-Appl의 논항으로 도출 과정에 참여한다. 이는 피영향성을 보이지 않는 소유사나 전치사구의 이동을 통하여 소유여격을 설명하려는 기존 접근법에 부족한 설명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참고문헌

- Alarcos Llorach, Emilio(1994),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Madrid: Gredos.
- Allen, Cynthia L.(2019), *Dative external possessors in early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 Bonet, Eulàlia(1991), “Morphology after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 Bosse, Solveig, Benjamin Bruening & Masahiro Yamada(2012), “Affected experiencer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 30, No. 1, pp.

1195-1230

- Brucart, Josep M.(1994), "Sobre una incompatibilidad entre posesivos y relativas especificativas", Violeta Demonte(ed.), *Gramática del español*,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pp. 51-86.
- Burguillo, María Teresa(2021), "Reflexiones sobre la posesivización en español. Una aproximación cognitiva a las construcciones nominales con posesivo antepuesto", *ELUA*, Vol. 36, pp. 13-25.
- Cardinaletti, Anna(1998), "On the deficient/strong opposition in possessive system", Artemis Alexiadou & Chris Wilder (eds.), *Possessors, Predicates and Movement in the determiner phrase*, Amsterdam: John Benjamins, pp. 17-53.
- Cinque, Guglielmo(1999),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oft, William(1985), "Indirect object 'lowering'".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BLS)*, Vol. 11, pp. 39-51.
- Cuervo, Maria Cristina(2003), "Datives at large", Doctoral dissertation, MIT.
- _____(2010), "Against ditransitivity", *Probus*, Vol. 22, No. 2, pp. 151-180.
- _____(2020), "Datives as applicatives", Anna Pineda & Jaume Mateu(eds.), *Dative constructions in Romance and beyond*,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pp. 1-39.
- Deal, Amy Rose(2013), "Possessor Raising", *Linguistic Inquiry*, Vol. 44, No. 3, pp. 391-432.
- Den Dikken, Marcel(2023), "High and low applicatives of unaccusatives: Dependent case and the pase", *Linguistic Inquiry*, Vol. 54, No. 3, pp. 479-503.
- Dixon, Robert(2010), "Possession", Robert Dixon(ed.), *Basic linguistic theory, vol. 2: Grammatical top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52-312.
- Dumitrescu, Domnita(1990), "El dativo posesivo en español y en rumano",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Vol 20, No. 2, pp. 403-429.
- Eguren Gutiérrez, Luis(2016), "Pronombres personales", Javier Gutiérrez-Rexach (coord.), *Enciclopedia de Lingüística Hispánica*, Vol. 1. London: Routledge, pp. 859-869.
- Georgala, Efthymia(2012), "Applicatives in their structural and thematic function: A minimalist account of multitransitivity",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Gutiérrez Ordóñez, Salvador(1977-1978), “Sobre los dativos ‘superfluos’”, *Archivum* XXVII-XXVIII, pp. 415-452.
- Haddad, Youssef A.(2016), “Possessively construed attitude dative constructions in Lebanese Arabic”, *Brill’s Journal of Afroasiatic Languages and Linguistics*, Vol. 8, pp. 37-75.
- Haegeman, Liliane(2003), “Conditional clauses: External and internal syntax”, *Mind & Language*, Vol. 18, pp. 317-339.
- Halle, Morris & Alec Marantz(1993), “Distributed morphology and the pieces of inflection”, Ken Hale, & Samuel Jay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Cambridge MA: MIT press, pp. 111-176.
- Hernanz, M. Lluïsa(2006), “Emphatic polarity and C in Spanish”, Laura Brugè (ed.), *Studies in Spanish syntax*, Venice: Universita Ca’ Foscari, pp. 105-150.
- Huerta Flores, Norohella(2009), “Los posesivos”, Concepción Company Company(ed.), *Sintaxis histórica de la lengua española, vol. 1*, Mexico: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p. 611-757
- Kim, Sangyoon(2012), “Una explicación formal de la orientación y distribución de los adverbios de actos de habla”,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Vol. 42, No. 2, pp. 127-151.
- _____ (2018), “Dupllicity in possessive merger: Evidence from Spanish alienable possessive constructions”, *The Linguistic Review*, Vol. 35, No. 3, pp. 371-412.
- Landau, Idan(1999), “Possessor raising and the structure of VP”, *Lingua*, Vol. 107, pp. 1-37.
- Langacker, Ronald(1995), “Possession and ossessive constructions”, John Taylor & Robert Mac Laury(eds.), *Language and the cognitive construal of the world*, Berlin: Mouton de Gruyter, pp. 51-79.
- Lee-Schoenfeld, Vera(2006), “German possessor datives: raised and affected”, *The Journal of Comparative Germanic Linguistic*, Vol. 9, pp. 101–142.
- Masullo, Pascual J.(1994), “Incorporation and Case Theory in Spanish.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Meyer-Lübke, Wilhelm(1899), *Grammatik der Romanischen Sprachen*, Vol. 3: Syntax. Leipzig: Reisland.
- Ortiz Ciscomani, Rosa María(2017), “Datividad y posesión”, Concepción

- Company Company & Norohella Huerta Flores (eds.), *La posesión en la lengua española*, Madrid: CSIC, pp. 373-401.
- Payne, Doris L. & Immanuel Barshi(1999), “External possession. What, where, how, and why”, Doris L. Payne e Immanuel Barsh(eds.), *Exteranal possess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p. 3-29.
- Perlmutter, David(1970), *Deep and Surface Structure Constraints in Syntax*, New York: Rinehart & Winston.
- Picallo, Carme, & Gemma Rigau(1999), “El posesivo y las relaciones posesivas”, Ignacio Bosque & Violeta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971-1023.
- Pykkänen, Liina(2002), “Introducing Arguments”, Doctoral dissertation, MIT.
 _____(2008), “Introducing Arguments”, Cambridge MA: MIT Press.
- Real Academia Española-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 (2009),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Vol. 1, Madrid: Espasa-Calpe.
- Romero, Juan(2019), “Algunas reflexiones sobre los dativos eticos”, *Anuario de Estudios Filológicos*, Vol. XLII, pp. 233-245.
- Thompson, Chad(1996), “On the grammar of body parts in Koyukon Athabaskan”, Hilary Chappell & William McGregor(eds.), *The grammar of alienability: A typological perspective on body part terms and the part-whole relation*, Berlin: Mounton de Gruyter, pp. 652-676.
- Velázquez-Castillo, Maura(1996), *The grammar of possession. Inalienability, incorporation and possessor ascension in Guaraní*, Amsterdam: John Benjamins.

김상윤

덕성여자대학교
 sangyoonkim@duksung.ac.kr

논문투고일: 2023년 11월 19일
 심사완료일: 2023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21일

Possessive dative constructions revisited

Kim, Sangyoon

Duksung Women's University

Kim, Sangyoon(2023), "Possessive dative constructions revisited",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4(3), 31-56.

Abstract Speakers of languages without possessive dative constructions feel unfamiliar with the way Spanish occasionally expresses possessive relation through the dative case. Koreans also struggle to understand the semantic difference between constructions with possessive datives and possessives such as *se me torció el tobillo/se torció mi tobillo*. The possessive dative entails affectedness indicating that the possessor eventually becomes a beneficiary or a victim of the event. This paper divides dative possessive constructions in Spanish into three types, that is, part-whole, belonging and kinship, and analyzes their semantic properties and restrictions laid down by context. This part is stated without relying on theoretical terms and provides plenty of detailed examples in hopes that the notion of affectedness is introduced in Korean ELE classes so that dative possessive constructions could be better understood. Then, an explanation is given that the possessive dative and the ordinary dative with the meaning of recipient or source are different instances of a same functional category codifying possession and affectedness.

Key words possessive dative construction, affectedness, possessive, noncore argument, applicative phrase